

研究論文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 - 전환기 한반도의 리더십 분석 -

강 상 규*

I. 문제의식의 소재	IV. 배외(排外)의 배타적 정치공간의 구축과 권력의 집중
II. 수렴청정기 대왕대비의 비호와 대원군의 권력 실세로의 부상	V. 맺음말: 전환기 대원군 리더십의 패러독스
III.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와 ‘예기치 않은’ 사태의 전개	<참고문헌>
	<국문요약>

I. 문제의식의 소재

대저 그 자리도 가히 할 만한 자리였고, 재주 또한 할 만 했고, 시대적 운세 또한 할 만했으나, 꼭 필요한 것이 배움이었다. 고금을 회통하고 중외를 관찰 할 만한 학식으로 그 힘센 팔을 걷어붙이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여 문명한 열강과 같이 바다와 육지로 함께 달리며 의젓하였어야 옳았는데, 그의 배움이 없어 내정을 다스리되 사사로운 지혜를 스스로 사용하여 움직임이 많았고 거동이 지나쳤으며 외국에 대하여는 배척을 위주로 하고 폐쇄를 고집하다 스스로 소경을 만들어 화가 나라에 미쳤으니 반도(半島) 중흥의 기운도 마침내 회복되지 못하였다. 애석하도다. ‘아픈’ 역사(痛史)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¹⁾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정치외교사 전공(hangang@snu.ac.kr).
1) 박은식, 『한국통사』(상)(박영사, 1974), 58~59쪽, 원문 249쪽 참조하여 다시 번역했음.

박은식(1859~1925)이 『한국통사』(1915)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대원군(이하응, 1820~1898)의 배외정책에 대해 해석해하는 대목이다. 대원군, 그가 조선정계에 등장한 것은 이른바 ‘예의 관념’에 기반한 동아시아 문명권의 전통적 질서가 동요하면서 바야흐로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이 ‘국가평등관념’에 근거한 근대 국제질서로 변동하는 조짐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고 조선의 정치적 국면이 심각한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던,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의 와중에서였다.²⁾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대원군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과감한 일련의 ‘개혁’과 아울러 단호한 ‘쇄국’정책 등으로 인해 일찍부터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³⁾ 하지만 병인박해(1866)로 불리는 대원군의 천주교박해는 이후 조선이 이른바 ‘쇄국정책’—보다 정확하게는 배외/척화정책—을 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배경이나 사건의 경위를 살피지 않고 그저 ‘기정사실’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는

2)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예의’와 ‘부강’의 상극적 긴장, 『사회와 역사』, 71호(2006), 74쪽 참조.

3) 대원군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 대원군이 행사한 권력의 ‘성격’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연구만 지적해두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우선 대원군을 일종의 ‘근대지향적인 개혁가’로서 간주하고 대원군 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명한 연구로는, 이선근, 「대원군의 정치, 『한국사(최근세·현대편)』(을유문화사, 1963); 梶村秀樹, 「朝鮮近代史の若干の問題, 『歴史學研究』, 288호(1964); 曹直亮, *The Rule of the Taewon'gun, 1864-1873: Restoration in Yi Korea*(Cambridge: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2); 藤間生大, 『近代東アジア世界の形成』(東京: 春秋社, 1977)의 제2장 3절, 「大院君政權の性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대원군을 ‘반역사적이자 보수적 정치가’라고 평가하면서, 대원군 개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는 연구로는, 진덕규, 「조선후기 정치사회의 권력구조,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성대경, 「대원군정권 성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1984)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Palais는 그의 유명한 저서,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5)에서 기존연구가 <봉건 vs. 근대>, <보수 vs. 진보>라는 지나친 단순화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대원군을 ‘실용주의적’ 이면서도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개혁가로 평가한다. 팔레의 연구는 이분법적인 틀에 구애되지 않고 중층적인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 그리고 조선정치의 구조적인 측면을 천착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대원군의 집권 시기를 보다 진지하게 이해하는 전기를 마련한 작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팔레의 연구 이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대원군 시기의 복합적인 성격을 검토한 것으로서 안외순, 「대원군집정기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1996); 연갑수, 『대원군집정기 부국강병정책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해안, 2006)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천주교회사 분야의 연구들이 있지만, 대체로 대원군의 변덕스러운 심경변화를 통해 대원군의 천주교박해를 설명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대원군은 애초에 천주교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대원군의 부인인 민 부대부인(1818~1898)은 일찍이 천주교를 받아들여 교리문답을 배웠으며,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이에 대해 감사의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종을 키운 유모 박씨 부인이 마르타(Maltha)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였다는 사실⁴⁾ 등은 평소 대원군의 천주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갑자기 1866년 1월의 시점에서 대체 ‘어떠한 경위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천주교를 철저하게 탄압했던 것일까? 대원군이 ‘실용주의적’이면서 보수적 개혁가였다는 기존연구 성과를 상기해보더라도 대원군의 천주교탄압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행위가 종교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만다거나 혹은 어떤 우둔한 정치가의 광기어린 돌발적 행위와 같은 하나의 역사적 해프닝 정도로 간주되고 마는 것은 지나치게 ‘비정치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천주교 탄압이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정치권력의 향방 혹은 국내세력간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어떠한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은 현실정치의 장에서 특히 대원군의 정치권력과는 어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었을까?

조선정치의 ‘구조’와 구체적인 현실정치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병인박해가 시작되었던 1866년 1월의 시점에서 대원군이 어떠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대원군의 천주교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위와 이와 관련된 사태의 전개, 그 정치적 결과 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4) 샤를 달레(저)/안응열·최석우(역주), 『한국천주교회사』(하권)(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360-361쪽;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56쪽; 조광, 「대원군 부인의 영세 입교: 왕의 어머니의 영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경향잡지』, 96권(2004), 63쪽 등을 참조.

II. 수렴청정기 대왕대비의 비호와 대원군의 권력 실세로의 부상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정치공간이 왕실의 외척세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세도가문에 의해 실질적으로 장악되어갔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박제형의 『근세조선정감』(1886)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무릇 군국기무(軍國機務)와 백관(百官)의 장주(狀奏)도 모두 먼저 세도재상과 의논한 다음에 왕에게 아뢰어지며 왕도 또한 세도재상에게 먼저 물은 다음에 결재하니 위엄과 복이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고, 관직을 주고 빼앗는 일도 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온 나라가 세도재상을 섬기기를 마치 신명을 섬기듯 한다.⁵⁾

이 과정에서 왕권은 전례 없이 위축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의 국왕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대왕대비의 수렴청정을 예외 없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대왕대비가 후임 국왕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마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국왕의 정통성이 약해져가는 가운데, 왕실의 외척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해가고, 권력행사, 권력배분, 엘리트의 충원 등 정치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 거듭되면서 정치권력의 사유화 경향은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⁶⁾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대원군의 정치권력을 보다 사실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서술을 잠시 접어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원군이 국정을 담당한 갑자년(1864)부터 계유년(1873)까지 십년 동안 나라 안이 온통 공포에 휩싸였다. …옛 제도에서는 나라의 지시가 내려올 때 반드시 ‘왕이 이처럼 말씀하셨다’로 서두가 시작되었으나, 이때 십년간은 오로지 ‘대

5) 박제형, 『근세조선정감』(탐구당, 1975), 2~3쪽.

6)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1800—1863』(상/하)(청년사, 1990); 박광용, 「19세기 전반의 정치사상」, 『국사관논총』, 40집(국사편찬위원회, 1992); 홍순민, 「19세기 왕위의 승계과정과 정통성」, 『국사관논총』, 40집(1992); 김명숙, 「세도정치기의 정치행태와 정치운영론」, 한양대학 박사논문(1996); 오수창,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한국사』(32)(국사편찬위원회, 1997)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

원위분부(大院位分付)'라는 다섯 글자만이 바람처럼 전국을 횡행하였다.7)

왜냐하면 이처럼 과장된 서술들은 대원군이 정치권력을 냉혹한 현실정치 공간과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획득해가는 측면을 간과하게 함으로써, 대원군의 권력이 마치 선협적으로 주어진 것 같은 이미지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대화는 고종이 국왕으로 즉위한 바로 그날, 대원군에 관한 예우문제와 관련하여 대왕대비가 대신들과 협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대원군의 정치권력에 관한 물역사적 이미지가 현실 상황을 크게 왜곡할 수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대왕대비: (살아있는 생부에게—필자) 대원군 봉작은 나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일은 대군(大君)의 예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대군이 출입할 때 팔인여(八人輿)를 타면 대신들이 모두 그에 경의를 표하여야 하므로 대원군이 완강히 사양하오.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 어쩌면 좋겠소?

정원용(1783~1873): 매사에 선례를 참작하면 좋은데, 이러한 예는 전례가 없으니 마땅히 상의해서 아뢰겠습니다.

대왕대비: 하지만 여러 대신들이 이미 자리에 왔으니 지금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소.

김홍근(1796~1870):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갑자기 결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외의 체통에 관한 규례가 매우 엄격하므로 아마 신 등이 대원군과 서로 접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왕대비: 하지만 혹시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김좌근(1797~1869): 이미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이상, 예의규범을 미리 강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왕대비: 대원군의 탈 것은 대신과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로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시오.8)

7) 황현, 『매천야록』(1910), 3쪽.

8) 『일성록』 고종즉위년 12월 13일.

위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대원군’이라는 존재는 그 독특한 위상으로 말미암아 고종이 즉위하는 날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대왕대비(1808~1890)가 대원군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반면, 당시의 대신들은 ‘살아있는 대원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선 정치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강력한 정치적 실세로 등장할 소지가 있는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⁹⁾

이처럼 당시 소수의 세도가문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원군이 정계의 실력자로 급부상해갈 수 있었던 데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 어쩌면 전환기 국내외의 위기상황 속에서 비범한 현실정치 감각을 지닌 대원군이 자신의 정치력 확보의 계기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십분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표현일지 모른다.

이 시기 대왕대비는 철종이 후사 없이 죽은 뒤 당시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위상으로 인해 국왕을 결정하고 수렴청정까지 하게 되었으나, 자신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감당하기에는 궁정 정치가인 자신의 현실적인 정치력과 실질적인 권력기반이 대단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정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시사적이다.

대왕대비가 지시하였다. “아! 오늘처럼 나라 형편이 견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적이 선대에 언제 있었는가. 어린 임금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종묘와 사직이 다시 편안해져서 무궁토록 계속될 것을 모두가 다 같이 바라고 있는 바이다. 내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참으로 백 가지 천 가지의 근심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대대로 관직에 올랐던 가문의 사람들로서 좋건 싫건 나라와 운명을 같이해야 할 처지가 아니겠는가. 필경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좋은 의논과 좋은 대책이

9) 조선의 정치구조에서 ‘살아있는 대원군’이라는 존재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관해서는, 강상규,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정치적 관계 연구: 왕실내 정치적 긴장관계의 구조와 과정」, 『한국정치학회보』, 40집 2호(2006), 31~32쪽을 참고할 수 있다.

날마다 제기되어 올라올 것을 나는 내심 바라노라. 만일 그렇지 않고 밤낮으로 분주하게 왕래하는 것이 오로지 부귀나 세력,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라면, 이는 나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선대부터 대대로 받아온 은덕마저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관리들은 모두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¹⁰⁾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렴청정에 들어간 대왕대비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혀있던 공론을 열어 위기상황에 대처해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전전공공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수사적이거나 의례적인 차원을 넘어 이제까지 정치를 담당해온 안동김씨로 상징되는 세도가문 및 부패한 위정자들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예컨대 선왕인 철종에 대한 공식적인 거상(居喪)이 끝나고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가는 첫 날에 대왕대비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왕대비가 지시하였다. “아! 선왕의 재위 14년간은 일기가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따라서 국고가 충만하여 백성들의 생활에 곤궁함이 없으며 인구도 늘고 물산도 풍부해지는 보람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나라의 재정은 고갈되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기강은 헤이한 데다가 풍속까지 날로 악화되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슬프다. 슬프다. 차마 무슨 말을 하겠는가...모든 관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은 무엇이고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은 초기에, 무엇이 좋고 그른 것인지를 똑똑히 밝혀 기강을 바로 잡음으로써 역만 년을 뺏어 내려갈 우리의 크나큰 타전을 튼튼히 다지지 않을 거라면, 내가 불가불 수렴청정하면서까지 정사에 참여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옛 사람들이 지조라고 하던 것을 지금 사람들은 중히 여기지 않고 옛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던 것을 지금 사람들은 대수롭게 알지 않는 탓으로, 절제하는 일반적 기풍은 자취를 감추고 개인의 탐욕만 늘어나니 이리저리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자들이 모두 이익만을 노리고 다니는 무리일 뿐이다. 굳게 지켜야 할 법조문은 빈 문서장으로 여기고 작고 큰 뇌물봉치를 받아먹는

10) 『고종실록』 즉위년 12월 22일.

것을 경사로 여기건만 사헌부나 사간원에서는 강직하게 간쟁하는 말이 들리지 않고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관청에서는 공정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다. 비위 좋게 아첨하는 것을 비루하다고 하지 않고 남들과 어울려 비웃거나 꾸짖거나 하는 것을 수치로 알지 않는다. 그래서 풍기가 날로 그릇되고 세상이 날로 저속해지면서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과 나라의 애처로운 형편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이 되었다. 아, 말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 어찌 가슴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지 않겠는가.”¹¹⁾

한편 대원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정치의 장에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원군은 정치적 후원세력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대왕대비의 막후에서 당시 조선에서 나타나고 있던 심각한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쇠락한 ‘왕실의 권위 확보’ 및 ‘왕조국가의 재건’을 추구하려 하였고, 대왕대비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그 같은 대원군의 현실정치 감각과 비전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수용하고 있었다.

대왕대비는 자신의 아들 현종에 의해 왕으로 추존된 자신의 남편인 익종(효명세자, 1809~1830)의 대통을 잇게 한다고 하면서 명복을 왕으로 결정했다.¹²⁾ 대왕대비는 고종의 승계직후 새 국왕의 대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계통이 무슨 둘로 된다고 의심할 것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고종이 철종의 뒤를 이으면서도 왕위를 물려받아 내려온 계통(=대통=왕통)은 정조—순조—익종—현종의 뒤를 잇는다고 밝히고, 익종이 왕통상 고종의 아버지가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¹³⁾ 이처럼 대왕대비는 왕통의 계통상 새로운 국왕의 어머니였고, 대원군은 그의 생부라는 점에서, 고종의 국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에 극히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요소가 왕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정치적 연합을 공고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어린 국왕이 자신의 사친인 대원군을 대하는 태도도 극진하여 대원군의 거처인

11) 『고종실록』 원년 정월 10일.

12) 『고종실록』 즉위년 12월 초8일.

13) 고종의 왕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관해서는, 『고종실록』 즉위년 12월 8일, 12월 30일; 황현, 앞의 책, 9쪽.

운현궁을 새로 수리하여 이곳으로 통하는 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¹⁴⁾ 대왕대비를 모시고 운현궁에 행차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실시하는가 하면,¹⁵⁾ 대원군이 남연군(1788~1836)의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올 때 송례문 밖에 나아가 그를 마중하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다.¹⁶⁾ 이러한 국왕의 태도가 대원군의 위상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왕대비와 대원군은 백성들의 봉기의 원천이 되어온 요인들을 혁파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개혁의 명분을 확보해나갔다. 주로 대왕대비의 막후에서 당시의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치기반을 다져가던 대원군이 권력의 실세로서 현실정치의 수면위로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1865년 4월 국가적 대사업이던 경복궁 중건의 책임을 대왕대비로부터 위임받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대왕대비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대원군의 정책들은 대단한 것이어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그런 만큼 크고 작은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예컨대 조선후기 조선의 소중화의식을 상징하는 만동묘를 철폐하라는 지시는 처음에는 이를 철회하려는 상소 등으로 나타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자들 사이에서 조정 및 대원군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이어져 갈 기미를 보이고 있었고,¹⁸⁾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노동력의 동원이나 재원의 마련은 정치적으로 대원군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보다 심각한 결과를 파생할 수 있는 문제가 수면 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대외적인 위기의식과 아울러 서교(西敎) 곧 천주교가 관련되어 있었다.

14) 『고종실록』 원년 6월 6일.

15) 『고종실록』 원년 9월 24일.

16) 『고종실록』 2년 8월 30일.

17) 『고종실록』 2년 4월 3일,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이처럼 더없이 중대한 일은 나의 정력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모두 대원군에게 위임하니 매사를 반드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시오.”

18) 『승정원일기』 고종2년 윤5월 2일의 임헌회의 상소; 고종2년 5월 13일의 송내회의 상소; 고종2년 7월 26일의 김건수 등의 상소; 고종2년 11월 26일의 경상도 유생 성석청 등 1468인의 연합 상소 참조.

19) Palais, James, *ibid.*(1975), pp. 38~42; 이광린, 『한국사강좌5: 근대편』(일조각, 1982), 23~24쪽 등을 참조.

III.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시도와 ‘예기치 않은’ 사태의 전개

애초에 대원군이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은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고종의 유모 박씨가 마르타라는 세례명을 가진 독실한 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원군은 개인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천주교 교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더욱이 그의 부인은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대원군은 천주교 선교사들과 극비리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에 잠입하여 조선교구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비밀리에 선교활동에 임하고 있던 베르뇌(Siméon François Berneux, 張敬一, 1814~1866) 주교가 중국의 프랑스 외방전교회 알브랑(François-Antoine Albrand)에 보낸 서한들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정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대원군)은 천주교를 좋게 여기며 선교사와도 좋은 관계에 있어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서양인 8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나와도 안면이 있는 한 관료와 주교인 나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조선과 통상을 요청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편지가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만일 러시아 사람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종교의 자유를 주겠노라고 그 관료에게 말했습니다(양력, 1864년 8월 18일자 서한).²⁰⁾

나는 최근에 한 조선의 관리를 통해 조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하는 새로운 탄원에 대해 대원군과 더불어 몇 차례 접촉한 바 있습니다. 대원군은 내 서한을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어머니인 그의 부인은 나더러 북경에 있는 우리측(=프랑스) 공사에게 종교 자유를 청하러 오라는 편

20) “Lettre de Mgr Berneux au P Albrand, Supérieur MEP,” 『베르뇌문서』(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453~454쪽; 샤를 달레, 앞의 책, 360쪽. “Cet homme n’est hostile ni à la religion qu’il sait être bonne, ni aux missionnaires qu’il connaît sous de très bons rapports. Il n’ignore pas que nous sommes ici huit Européens. Il s’est entretenu de l’évêque en particulier avec un mandarin païen, avec lequel J’ai moi aussi qqes relations. C’est à l’occasion d’une lettre des Russes qui demandaient à faire du commerce avec la Corée. Il dit à ce mandarin que si je pouvais faire qqe chose pour le débarrasser des Russes, il accorderait la liberté religieuse.”(원문의 오차를 수정한 것임)

지를 보내라고 비밀리에 전갈을 보내왔습니다.…비록 여전히 금지된 채로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좋으며, 내년에는 우리가 한층 더 편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양력, 1865년 11월 19일자 서한).²¹⁾

1860년 북경조약 이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된 상황에서 조선은 러시아를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측 상인들이 조선 국경지역으로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²²⁾ 대원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에 소개한 서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교사들을 통한 프랑스와의 교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그 가능성을 일찍부터 타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위의 서한에 나타나는 민부대부인의 행위는 이미 예상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866년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이 시작된 이후 프랑스의 이른바 ‘조선원정’에 해군 소위 후보생으로 참여한 쥐베르(Zuber, M. Henri)의 원정기는 이와 관련된 상황이 당시 외부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1866년 3월, 사람들은 조선에서 한 달 동안에 9명의 선교사들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중국에서 듣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근동해안에 기지를 세우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시도에 뒤이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살아남은 선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조대비의 양자인 어린 왕의 아버지인 섭정(대원군을 지칭—필자 주)은 러시아인들의 침입시에 베르뇌 주교를 소환토록 했었다고 한다. 그는 그 오랑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물러가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주교와 상의하고자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자발적으로 물러갔으며 그에 완전히 안심하여 선교사들의 조언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섭정은 선교

21) “Lettre de Mgr Berneux à Mr Albrand, supérieur MEP,” 위의 책, 481쪽; 샤를 달레(저), 안응렬(외역), 앞의 책, 374쪽. “Je viens d’avoir avec le prince régent par le moyen d’un mandarin, qqes rapports, au sujet de la nouvelle instance des Russes, qui demandent qu’on leur permette de s’établir sur le territoire coréen. Le prince a reçu avec bienveillance mes communications. Sa femme, mère du roi, m’a fait prier secrètement d’écrire à notre ministre à Péking, de venir demander la liberté religieuse.……Quoique toujours proscrits, notre position est bonne et je crois que l’an prochain nous serons encore plus à l’aise. N’oubliez pas de m’envoyer les portes-liqueurs ou caves que je destine au Régent etc.”

22) 『일성록』 철종12년 3월 27일, 고종원년 5월 23일, 『승정원일기』 고종원년 5월 15일, 원년 7월 22일.

사들을 몰아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이처럼 쾨베르의 기록에는 대원군의 천주교 선교사와의 접촉 시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대원군이 선교사들을 탄압한 이유까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갑자기 사라져서 대원군이 안심하게 되어 자신이 협력을 구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을 탄압하게 되었다는 쾨베르의 언급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쾨베르의 이러한 상황과약은 사태가 갑자기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대원군에 대한 배신감을 품고 조선을 탈출한 선교사들이 사건의 진상을 추론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1860년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가 1884년 조선과 조약을 맺게 되기 이전에 조선과 조약을 맺으려 시도하거나 혹은 조선에 공세적인 정책을 채택한 적은 없었다.²⁴⁾ 요컨대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은 반드시 객관적인 위기상황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대원군의 주관적인 대외정세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고종의 왕위승계이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러시아인들의 국경부근에서의 사적인 교섭시도를 조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이제이(以夷制夷)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두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요소가 사라져서 이에 대원군이 안심하여 자신의 과거 약속을 깬다는 식의 선교사측의 기록이 설득력을 갖으려면, 낙관적 전망을 피력한 베르뇌 신부의 최종 서한이후 베르뇌가 구속되기까지의 불과 얼마간의 사이에 대원군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현저하게 해소시킬만한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선 증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프랑스 선교사와 접촉하려는 대원군의 시도들은, 이 사건—지금부터 이 사건을 편의상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의 속성상 별다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얼마 후 대원군의 천주교 대탄압[丙寅邪

23) Zuber, M. H.(저, 1873)/여동찬(역), 「1866년 프랑스의 강화도원정기」, 『문학사상』, 82(1979), 302쪽.

24) Malozemoff, Andrew,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58) pp. 14~15.

獄이 벌어졌다는 점으로 인해 위의 원정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찍부터 하나의 역사적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으로 간주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주로 한국 교회사 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을 뿐이다.²⁵⁾ 이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대원군이 이후 천주교 탄압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원군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혹은 적어도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는—사실에는 거의 주목하려 하지 않았다.²⁶⁾ 그러면 대원군은 어떠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이른바 ‘거대한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있던 조선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사건을 다루는 달레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대원군과 프랑스 선교사간의 중간 연락책을 맡았던 천주교 신자 남종삼(1817~1866)은 당시의 사안이 대단히 민감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낙관하여 고종2년 12월에 있는 대원군과의 면담 후에, “여러 사람에게 방금 가졌던 대화를 이야기하였다.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신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서울에, 나라의 수도에 어울리는 큰 성당을 지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²⁷⁾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베르뇌가 서울에서 체포되면서, 주요 관련인물이 구속되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상황이 급전되어 가게 된다.

포도청의 보고에 의하면,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는 외국인(=베르뇌)이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겨 체포한 것이 고종3년(1866년) 1월 9일의 일이었다. 그를 심문한 결과 한국말이 유창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인 남종삼과 홍봉주 등과 교류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들도 함께 구속하게 되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국왕에게 보고하고 있다.²⁸⁾ 당시 막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빙성 있는 사실 기록이 눈에 띄지 않아 사태의 전말을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처럼 관련인물들이 구속된 원인을 오로지 대원군의 심경변화로만 설명해왔다. 대원군에게 배신당

25) 최석우, 「병인양요소고」, 『역사학보』, 30집(역사학회, 196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기독교문사, 1989), 116쪽

26) 간략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저작으로서, 이선근, 『대원군의 시대』(1974), 147~149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7) 샤를 달레, 앞의 책, 388쪽.

28) 『승정원일기』 고종3년 1월 11일.

했다고 믿는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의 급전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후의 사태진개를 고려해볼 때, 베르뇌를 비롯한 남종삼, 홍봉주 등의 구속사태가 대원군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선교사 체포에 관한 보고가 행해진 직후, 전현직 대신들은 연명으로 상소를 왕에게 올려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고 사태의 진상을 모르는 국왕 고종은 이들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게 된다.²⁹⁾ 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현직 대신들이 연명으로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땃땃한 윤리를 밝혀 사람의 기강을 세우고 바른 학문을 장려하여 풍속과 교화를 바로 잡는 것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변함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일종의 불량한 무리들이 간사스럽게 은밀히 드나들면서 요망스러운 말을 꾸며내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지 않고 크게 성토하지 않는다면 그제 나라가 나라구실을 못하고 사람이 사람구실을 하지 못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그들의 계책이 옛날의 황건적이나 백련교의 무리들과 같이 될 것이니 어찌 몹시 우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번성해가는 무리들과 현재 포도청에 체포되어 있는 놈들은 들판에 번져가는 불길마냥 기승을 부리며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통분하게 여겨 서로 이끌고 와서 연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으니 대왕대비의 지시를 받아서 의금부로 하여금 포도청에 간혀있는 여러 놈들과 함께 남종삼을 잡아다가 추국청을 설치하고 진상을 밝혀낸 다음 빨리 사형에 처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싹을 끊어버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9) 위의 정황을 이해하려면, 조선의 사법제도에 관해 얼마간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왕조의 국왕은 최고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건을 왕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첫째 유교국가로서의 질서 및 안위와 관련되는 모반, 내란죄 등 흔히 십악죄(十惡罪)에 해당하는 사안과 둘째 형조나 관찰사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국왕이 이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왕은 권내에 임시 재판소를 설치하고 진상을 조사케 한 뒤 국왕이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으며,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인명을 중시하여 함부로 사형이 언도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 등에 의한 것이었다. 신명호, 『조선의 왕: 조선시대 왕과 왕실문화』(가람기획, 1998), 160~164쪽 등을 참조.

국왕이 이에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렸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실하는 것은 바로 떳떳한 윤리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그것이 파괴된다면 오랑캐나 짐승과 같다. 그런데 더구나 높은 관리의 반열에 있는 자(승지인 남종삼을 지칭—필자주)가 스스로 처단 받을 죄를 범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몹시 근심스럽고 원통하여 차라리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옥에 갇혀있는 여러 놈들과 함께 의금부로 하여금 남종삼을 잡아다가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내도록 할 것이니, 경들은 그렇게 알라.”³⁰⁾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는, 만일 위의 대신들이 대원군이 사태의 실질적인 장본 인임을 모르고 단순히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³¹⁾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건이 대원군의 지휘 하에 적어도 그의 의도대로만 수습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공개적인 심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사태가 간단치 않았음은 의금부가 국왕에게 보고한 사건의 최종진상에서도 드러난다.

의금부에서 죄인 남종삼과 홍봉주 등의 최종 죄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남종삼의 죄안은 이리합니다.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것을 늘상 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변란을 꾸미면서 감히 탄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학으로 말하면 아버지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는 불순한 학문인데 자신이 높은 관리의 반열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양학을) 전파하고 익혀 왔습니다. … 심지어 러시아에 변고가 있다는 설과 프랑스와 화약(和約)을 맺을 계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명백히 근거할만한 단서도 없는데 요사스런 말을 지어내어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며 나라를 팔아먹을 계책을 꾸미면서 몰래 외적들을 끌어들이 음모를 하였습시다. 그의 죄상을 캐보면 만 번 죽어도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홍봉주

30) 『고종실록』 3년 1월 11일.

31) 달레에 의하면, 남종삼은 대원군의 지시로 당시 좌의정이던 김병학을 찾아가 만나 선교사를 통해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러시아에 대항할 것을 내용으로 한 서신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샤를 달레, 앞의 책, 387쪽.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에 소개한 대신들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연명 차자는 대원군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의 죄안은 이러합니다. 본래 신유년(=1801년)의 불순한 천주교 무리의 잔당으로서 대를 이어 불순한 교리에 깊이 미혹되어 다른 나라의 교인들과 결탁하였던 것입니다. 멀리 강남까지 건너가 서양 사람인 장경일(=베르뇌)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불순한 책을 읽고 불순한 교인들을 끌어들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장차 숨은 화단(禍端)이 있다는 것과 프랑스와 먼저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말을 장경일과 주고받은 것이 홍봉주였으며 남종삼을 부추기고 추동한 것도 역시 그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요언을 퍼뜨리고 나라를 팔아먹을 흉계를 꾸몄으며 도리에 어긋나게 반란 음모를 꾸민 것이 확실하다고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종삼과 홍봉주는 다 같이 때를 기다릴 것 없이 참형에 처하는 죄에 해당합니다.”…임금은 그 제의를 승인하였고 뒤이어 추국청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³²⁾

의금부의 진상보고에 의하면,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 사건’의 핵심인 대원군의 이름이 비록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태가 단순히 천주교의 전파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대원군과 모의한 내용이 사실상 전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정치적 실력자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 등, 사건의 진상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우에 따라서는 대원군의 정치적 위상을 근간에서부터 흔들어 놓을 소지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대원군이 적어도 사태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당시 대왕대비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여겨진다. 위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1866년 1월 다름아닌 왕비를 간택하는 상황에서였다.³³⁾ 그런데 대왕대비는 이 사건이 공개된 지 며칠 후에 17대 효종 이후 효종의 잠저에서 국왕이나 세자의 혼례를 거행하던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국왕의 혼인예식을 고종의 잠저인 동시에 대원군의 거처인 운현궁에서 치를 것임을 지시했으며,³⁴⁾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가 일단 발표된 다음에는

32) 『고종실록』 3년 1월 20일.

33) 『승정원일기』 고종3년 1월 1일; 1월 15일.

34) 『일성록』 고종3년 1월 16일.

천주교도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내겠다는 교서를 전국에 내렸다.³⁵⁾ 이처럼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관례를 깨면서까지 국왕의 혼례를 대원군의 거처인 운현궁에서 치르게 한다는 것은 국왕의 살아있는 생부인 대원군의 위상을 분명히 각인시키려는 의지가 대왕대비에게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천주교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왕대비의 교서는 대원군을 비롯한 왕실세력이 천주교를 적대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대원군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암묵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동년 1월 1일 대왕대비 자신이 국혼을 치르기 위해 내린 금혼령으로 시작된 왕비의 간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에서, 대왕대비는 최초의 간택일인 2월 13일 갑자기 수렴청정을 거둬서 발표하였다.³⁶⁾ 이러한 철폐(撤簾)발표가 갖는 의미는 아마도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해볼 때 비로소 그 파격적 측면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19세기에 들어서 수렴청정이 실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23대 순조 때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1745~1805)는 12월 28일에, 24대 헌종 때 순원왕후(1789~1857)는 12월 25일에, 철종 때 다시 순원왕후는 12월 28일에 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³⁷⁾ 이것은 연말에 수렴청정을 거둬서 신년부터 국왕이 새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한다는 관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연초, 그것도 국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국왕의 어머니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파격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이후 국혼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왕대비는 국왕의 어머니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³⁹⁾ 대왕대비의 철폐가 국왕의 결혼상대인 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부인 대원군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왕실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왕대비가 수렴청정

35) 『승정원일기』 고종3년 1월 24일; 『용호한록』(국사편찬위원회, 1979), 496~497쪽.

36) 『일성록』 고종3년 2월 13일.

37) 『순조실록』 3년 12월 28일; 『헌종실록』 6년 12월 25일; 『철종실록』 2년 12월 28일.

38) 조대비의 수렴청정이 파격적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연갑수, 앞의 책, 88~89쪽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39) 『일성록』 고종3년 2월 25일; 2월 29일; 3월 6일.

을 거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왕대비와 대원군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고려해볼 때 한편으로는 대원군에 대한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대원군이 현실정치의 실력자로서 전면에 등장해 있는 상황에서 왕실의 최고어른인 자신이 정치 현장에서 내려옴으로써 대원군이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면 대왕대비로서는 어린 국왕이 성장하여 정치적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 때까지 대원군이 왕실의 권위와 왕조국가 재건의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강한 모멘텀을 제공해 주려는 의도에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왕대비가 취한 조치들은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는 대원군을 직접 간접으로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두 사람의 협력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며, 대원군이 결과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지 않은 채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도 왕실의 핵심인물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대원군의 현실적인 정치 감각과 추진력, 정치기반에 깊이 의존하고 있던 대왕대비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 사건’과 이후 사태의 전개양상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난 그 저 작은 역사적 해프닝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 이후 조선의 정치사가 전개되어 갈 커다란 방향을 규정할 만큼 중요한 정치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애초에 천주교에 대해 관대하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던 대원군이 이 사건의 ‘예기치 않은’ 전개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천주교와 자신의 무관함을 마치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천주교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에 서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⁴⁰⁾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선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본격적인 반향이 들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0)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쿠퍼의 원정기를 상기해보기로 하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당시 ‘조선원정’에 참여한 프랑스 장교 후보생이 선교사 접촉 사건의 배후에 대원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조선정계의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소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원군의 정치적 위기의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재료가 되었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그가 천주교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IV. 배외(排外)의 배타적 정치공간의 구축과 권력의 집중

조선을 탈출한 리델(Felix-Clair Ridel, 1830~1884) 신부로부터 조선에서의 프랑스 선교사 처형 소식을 전해들은 북경주재 프랑스 공사 벨로네(Claude M. Henri de Bellone, ?~1881)는 청의 공친왕(1833~1898)에게 서한을 보내, 가까운 시일 내에 함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원정할 것임을 공언하고, 조선의 현 국왕을 폐위시키고 본국 황제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국왕을 옹립할 것과 아울러 중국이 조선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음을 선언하게 된다.

조선의 소왕국에서 저지른 무시무시한 폭행을 전하에게 공식적으로 알려드림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프랑스 황제는 이렇게 잔인한 폭행이 처벌되지 않는 것을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의 국왕이 우리의 불행한 동포들을 체포한 바로 그 날은 그가 통치하는 최후의 날이며, 조선 국왕은 그의 멸망을 스스로 선언하였다고 본인은 오늘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며칠 후 우리의 군대는 조선을 정복하려 진군할 것이며 우리의 존엄한 (프랑스) 황제만이 이제 조선과 주인 없는 공석의 왕위를 규정할 권리와 권한을 갖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에 대해 권한도 권리도 없음을 본인에게 수차 선언한 바 있으니,… 이제 조선왕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1866년 7월 13일자=음 6월3일 서한).⁴¹⁾

이후 조선은 청의 예부로부터 프랑스 측이 천주교 탄압을 이유로 함대를 집결시키고 있다는 소식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받게 된다.⁴²⁾ 이에 조선 측에서는 ‘천하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天下文明之國)’로서의 자부심과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랑캐나 금수 같은 지경에 빠지게 하는’ 천

41) 벨로네의 조선국왕 폐위선언은 여러 곳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권, 27쪽; 『籌辦夷務始末』 6권, 1012쪽; “Bellonet à Prince de Kung”(13 Juillet 1866), *Correspondance politique, Chine*, no. 41, pp. 293-294; 최석우(역), 『한불관계자료』, 『교회사연구』, 2집(1979), 205쪽; “Bellonet to Prince Kung”(July 13. 1866),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tic Correspondence, China · Japan*(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66~1882), pp. 420-423.

42) 『고종실록』 3년 7월 8일.

주교에 대한 배척을 근간으로 하는 척사윤음을 발표하는 등 내부의 결속을 공고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나가게 된다.⁴³⁾

이후 강화도에서 40여일에 걸쳐 프랑스 함대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丙寅洋擾]. 병인양요는 조선으로서는 서구의 군대와 충돌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외연상으로는 물리력의 충돌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그 심층에는 상이한 세계관의 충돌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들 행위자(actor)들은 서로를 각자의 문명 기준에 의거해 ‘야만’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프랑스 함대와 전투가 목전에 임박한 상황에서 조선과 프랑스 간에 오고간 격문의 내용은 이질적인 문명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조선 측에서 프랑스 함대에 보낸 격문] 너희 무리들이 우리나라에 교리를 퍼뜨리려고 한하는데 이는 참으로 옳지 못하다. 문물과 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다르고 각기 자기들이 숭상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 옳고 그름에 관해 우리가 더 논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학문을 숭상하고 너희가 너희들의 학문을 행하는 것은 마치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남에게 자기 조상을 버리고 남의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섬기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지극히 어질고 유덕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제멋대로 난동을 부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따라서 수만 명의 큰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바닷가에 나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토벌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내일 이른 아침에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급히 보낸다. 어느 군사가 옳고 그른지, 누가 이기는지 판가름하자.

[프랑스 측으로부터 돌아온 회답 격문] 선교사로 말하면 매우 어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털끝만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천리를 어기고 그들을 죽인 죄악은 세상의 법으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이 지난 몇 해째 어질지 못하게 마구 행동하였다가 우리 대국이 토벌하고 징벌을 가하자 부득이 머리를 수그리고 우리의 지시를 존중하게 된 사실을 듣지 못하였는가! 이번 프랑스 전권대신은

43) 『고종실록』 3년 8월 3일.

불인하고 불의한 나라인 조선을 징벌할 것을 확정하였으니 만약 귀를 기울여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전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⁴⁴⁾

이때 대원군은 ‘서양의 오랑캐들이 수 백 년 간 세계를 위협하다 최근에는 급기야 중국까지 침략하여 유린하고 있으나, 오직 조선에서 만큼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저들이 조선에 와서 이곳에 예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있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서한을 의정부에 보냈다.⁴⁵⁾ 그는 서한을 통해 최후까지 요행을 바라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오랑캐들에 맞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결사 항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고통을 참지 못해 화친을 허락하면 이는 나라를 파는 것이요, 저들의 공갈을 못 이겨 교역을 허락하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적들이 경성에 쳐들어 왔다고 하여 만약 도성을 버린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만일 귀신을 부리는 제주가 있어 설령 이로써 적을 물리친다면 이후의 폐단은 사학(邪學)보다도 심하리라.⁴⁶⁾

양헌수(1816~1888) 부대의 활약 등으로 프랑스 함대가 퇴각하자 조선은 승리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외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가운데 이루어낸 승전의 소식은 대원군의 정치적 입지를 보다 공고한 것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천주교 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면서, ‘배외적’인 태도를 한층 분명히 해나갔다. 대원군은 프랑스 함선이 정박한 곳에서 천주교도들을 탄압하고 다음과 같은 공시문을 포고했다.

양이들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천주교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강물이 이양선에 의해 더럽혀진 것도 바로 이 양이들 때문이다. 따라서 천주교도의 피로써 저들이 남긴 오점을 씻는 것이 당연하다.⁴⁷⁾

44) 『고종실록』 3년 9월 11일; 田保橋潔, 앞의 책(1940), 65~68쪽.

45) 『고종실록』 3년 9월 11일.

46) 『용호한록』 4권, 제18책, No. 994, 44~45쪽.

그런데 이러한 대원군의 배외적 태도가 더욱 에스컬레이트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첫 번째는 중국에서 발행되는 <中外新聞>(1867년 1월 18일자=음력 1866년 12월 12일)에 일본인 하치노해 준스쿠(八戶順叔)가 투고한 정한설(征韓說)을 청의 예부가 조선에 알려줌으로써, 그동안 교린관계에 있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급속히 확산된 사건이고,⁴⁸⁾ 두 번째는 1868년 4월 18일 독일인 오페르트(Oppert, Ernst Jacob, 1832~1903)가 대원군의 선친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한 사건이었다. 정한설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이후 왕정복고를 선언한 메이지 정부의 서계(=교린국의 관청과 왕복하는 문서)의 격식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본과 서양이 다를 것이 없다는 이른바 ‘왜양일체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오페르트 도굴사건은 양이의 야만성을 여지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조선의 배외정책의 명분을 세워주는 더할 수 없는 소재가 되었다.⁴⁹⁾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충격을 일찍이 그리피스(Griffis, William Elliot, 1843~1928)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무덤이 파헤쳐지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에 싸이게 된 것은 분명하다.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주된 목적은 시체를 파헤치고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본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엄연한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그들은 목격할 것이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서양인들은 야만족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도둑이라고 조선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었다. 1871년 미국의 선박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눈길로 함대와 성조기를 바라보려 하고 있었다.⁵⁰⁾

47) 그리피스(저)/신복룡(역), 『은둔의 나라 한국』(집문당, 1999), 496쪽.

48) 『용호한록』4권, 제20책, no. 1029, 163~166쪽; 『籌辦夷務始末』권48, 동치6년, 1160쪽; 『동문회고』3권, 2479~2480쪽; 『고종실록』 4년 3월 7일; 4년 10월 1일; 『일본외교문서』11권, 69~79쪽 참조.

49) 오페르트의 도굴사건이 당시 조선에서 갖는 충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군에 의해 왕릉인 선릉과 정릉이 도굴당한 사실은 임진왜란의 와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며 충격적인 사건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란이 끝난 후 일본 측에서 우호관계를 회복할 것을 청해왔을 때, 조선 측이 그 전제조건으로서 ‘선릉을 파헤친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 것은 당시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조실록』 26년 4월 13일; 4월 15일; 4월 16일; 39년 4월 5일; 7월 5일; 11월 9일; 11월 17일.

이 사건으로 대원군의 배외정책은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근세조선정감』(1886)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오페르트 사건)에 이르러 서교에 대한 금지령은 더욱 엄중해졌다. 여러 고을에 령을 내려 무릇 서교 신자는 (기존의 상황과는 다르게) 믿음을 버리겠는가 하는 심문도 하지 않고 즉각 모두 배어 죽였다. 포도청의 관리로서 옷을 바꿔 입고 은밀히 수사하는 자가 국내에 꼭 깔려 있었다. 교도들 중에는 깊은 산 속에다 집을 짓고 그 교를 익히는 이도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다 잡히다시피 하였다.⁵¹⁾

이러한 대원군의 배외정책은 페리(Matthew Perry, 1794~1858)의 일본 개항(1854년)을 재현하려는 미국의 로저스(Rodgers, John, 1812~1882) 제독이 이끄는 함대와의 충돌[신미양요]로 이어졌다. 강화도의 초지진, 광성보 등에서의 전투 결과 조선 측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미국함대는 통상교섭에 실패하고 결국 후퇴했다. 미국 함대의 철수이후 대원군이 “서양의 배에서 나는 연기와 먼지가 온 천하를 뒤덮어도, 동방국의 광채는 의연하게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시를 지어 자축하는가 하면, “양이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즉 화(和)하는 것이요, 주화(主和)는 매국이다.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를 경계하도록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⁵²⁾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경향각지에 세워 배외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됨은 유명한 사실이다.

V. 맺음말: 전환기 대원군 리더십의 패러독스

대원군이 정계에 등장할 무렵 조선의 대다수 위정자들은 서세동점으로 상징되는 대외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중국의 보호우산 속에 무임승차하려는 ‘편승’의식으로 일관하고 있었다.⁵³⁾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오로지 명분상의 존재로 전략

50) 그리피스, 앞의 책, 511~512쪽.

51) 박제형, 앞의 책, 28쪽.

52) 『승정원일기』 고종8년 4월 25일; 田保橋潔, 앞의 책(1940), 99~101쪽.

한 국왕과, 왕권의 정통성에 기생하는 소수 특권 가문들의 정치적 ‘담합’관계가 일상화되어 정치권력의 사유화가 고착되고 기층세력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력들의 불만과 불안이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가던 상황이었다.

대원군은 대외적 위기상황에 대해 위정자들에게 만연해 있던 편승의식을 정면으로 돌파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자신감과 일체감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조선의 ‘안과 밖’의 상황은 밀접하게 연동되어 변화하고 있었다. 대원군이 내건 척화론의 기치 하에 치러진 서양 공권력과 두 차례의 전쟁은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대원군은 ‘양이’의 위협과 이에 대한 정면 돌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설적인 최고 군령기관으로서의 삼군부의 복설 등 무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와 재정권, 군사적 통제권까지 장악해나갔다. 사실상 그의 책임 하에 서양의 함대와 전투를 치르고 난 후, 나라 전체는 오랑캐를 격퇴시켰다는 승리감에 들떴으며, 대원군의 강경한 ‘배외적’ 태도는 그의 국내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유림세력을 비롯한 잠재적이면서도 완강한 반대세력의 비판을 현실적으로 무마시키는 완충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대원군은 현실의 정치적 권력관계와 상황변화에 지극히 민감히 반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 혹은 물리적 외압을 역으로 현실정치의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던 정치적 실천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현실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는 대외적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적 계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배외의 배타적인 정치 공간’ 위에서 ‘사실상의 섭정’의 위치에 올라 왕실의 권위 회복과 조선왕조의 정치질서의 재건을 도모해 나가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원군이 기울인 노력이 반드시 객관적인 성과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대원군의 지나치게 강경한 배외적 태도는 서양 열강 및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극도로 고조시킴으로써 조선의 대외적인 입지를 위태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정세에 관한 객관적 인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에서 배외적 태도가 강력하게 견지되고 있던 이 시기가 청에서는 동치중흥, 일본에

53) 186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에 팽배한 이러한 대외인식의 태도를 김용구 교수는 ‘오지 사고방식(hinterland thinking)’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김용구, 『세계관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문학사지성사, 2001).

서는 메이지유신이 추진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직 조선이 외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가능한 선택 범위를 크게 제한당하지 않았던 시기로서 상대적으로 주체적인 자강의 성공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원군이 추진한 일련의 배외정책이 향후 조선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결정적으로 축소시켜 놓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대원군의 이러한 강경한 배외정책이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가 ‘쇄국’ 주의자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가 해외사정에 어두웠던 데서 연유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 사건’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애초에 서교에 친숙하여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대러시아 동맹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하고 있던 대원군이 배외정책으로 급선회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은 그가 이른바 ‘쇄국론자’였거나 혹은 해외사정에 완전히 어두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철저한 정치적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달리 강한 승부욕과 권력의 추이에 민감했던 대원군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배외정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함으로써, 조선이 정치적, 사상적으로 유연하게 타협하고 조정해나갈 여지가 현실정치의 장에서 더욱 막혀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시대상황에서 대원군의 상황추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태도가 빚어낸 패러독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만연해 있던 편승의식을 정면으로 돌파하려했던 대원군의 정책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동문회고』 3권.
 『베르뇌(S. F. Berneux, 張敬一)문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조선왕조실록』 선조/순조/현종/철종대.

- 『승정원일기』 고종대.
- 『용호한록』 3권, 국사편찬위원회, 1979.
- 『일본외교문서』 11권.
- 『일성록』 철종/고종대.
- 『罪人鍾三鳳周等鞫案』 奎15149.
- 『籌辦夷務始末』 6권.
-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권.
- 강상규,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정치적 관계 연구: 왕실내 정치적 긴장관계의 구조와 과정」. 『한국정치학회보』 40집 2호, 2006, 27~49쪽.
-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예의’와 ‘부강’의 상극적 긴장」. 『사회와 역사』 71호, 2006, 49~82쪽.
- 김명숙, 「세도정치기의 정치행태와 정치운영론」.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6.
-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 서울: 혜안, 2006.
-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 박광용, 「19세기 전반의 정치사상」. 『국사관논총』 40집, 국사편찬위원회, 1992, 1~24쪽.
- 박광용, 「19세기 초·중반의 정치와 사상」.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6년.
- 박은식, 『한국통사』(상). 서울: 박영사, 1974.
- 박계형, 『근세조선정감』. 서울: 탐구당, 1975.
- 샤를 달레(저)/안응렬·최석우(역주), 『한국천주교회사』(하권).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성대경, 「대원군정권성격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4.
- 안외순, 「대원군집정기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6.
- 연갑수, 『대원군집정기 부국강병정책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오수창,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한국사』(32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201~282쪽.
- 이광린, 『한국사강좌 5: 근대편』. 일조각, 1982.
- 이선근, 『대원군의 시대』. 1974.
- 조광, 「대원군 부인의 영세 입교: 왕의 어머니의 영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경향잡지』(96권), 2004년 6월, 62~65쪽.
- 진덕규, 「조선후기 정치사회의 권력구조」. 『19세기한국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11~32쪽.
- 최석우, 「병인양요소고」. 『역사학보』 30집, 역사학회, 1966, 108~124쪽.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1』.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1800—1863』(상/하). 서울: 청년사, 1990.
- 홍순민, 「19세기 왕위의 승계과정과 정통성」. 『국사관논총』 40집, 1992, 25~49쪽.
- 황현, 『매천야록』. 1910.
- 藤間生大, 『近代東アジア世界の形成』. 東京, 春秋社, 1977.
- 梶村秀樹, 「朝鮮近代史の若干の問題」. 『歴史學研究』 288號, 東京, 1964. 후일 『梶村秀樹著作集 2권: 朝鮮史の方法』. 明石書店, 1993, 36~59쪽에 수록.
-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 「Bellonet à Prince de Kung」(13 Jeuillet 1866), *Correspondance politique, Chine*, No. 41, 최석우(역), 「한불관계자료」. 『교회사연구』 2집, 1979, 196~288쪽.
- Choe, Ching Young(曹直亮), *The Rule of the Taewon'gun, 1864~1873: Restoration in Yi Korea*. Cambridge: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2.
- Griffis, W. E.,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Alles, 1882; 신복룡(역), 『은둔의 나라 한국』. 서울: 집문당, 1999.
- Palais, Jame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5.
- Malozemoff, Andrew,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1958.
- Zuber, M. H., “Une expédition en Corée”(1873), 여동찬(역), 「1866년 프랑스의 강화도원정기」. 『문학사상』 82, 1979, 302~317쪽.

국문 요약

이 논문은 대원군의 천주교탄압의 경위를 분석함으로써 대원군 정치권력의 성격을 고찰한 글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천주교박해는 병인양요를 불러일으키는 등 조선이 이른바 ‘쇄국정책’을 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병인박해(1866)로 불리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은 그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정사실로만 받아들여질 뿐 정치학적으로 깊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흔히 알려진 바

와 달리, 대원군은 오래도록 천주교와 친숙한 관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천주교를 왜 갑자기 그것도 그토록 심하게 탄압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의 국내외적 현실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 시도 사건’을 실마리로 하여 이러한 의문에 대해 기존의 설명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대원군의 정치적 위상은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 대원군은 애초에 천주교에 친숙하였으며,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대러시아 동맹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태가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급전하면서 대원군의 이런 구상이 극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대원군은 정치적으로 자기와 공통된 이해관계에 놓여있던 대왕대비의 도움 등에 힘입어 천주교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아 천주교 탄압정책과 배외정책을 갑작스럽고도 극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천주교와의 관련소지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이후 연쇄적으로 외세와의 대결로 이어졌고 대중들에게 정치적 일체감과 승리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대원군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지지를 강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상황에서 이러한 배타적 정치공간의 창출과 권력집중은 대원군의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으나 동시에 조선이 유연하게 타협하고 조정해 나갈 여지를 현실정치의 장에서 거의 봉쇄해버리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기도 했다.

● 투고일 : 2007. 1. 10.

● 심사완료일 : 2007. 2. 27.

● 주제어(keyword) : 배외정책(antiforeign policy), 대원군의 선교사 접촉시도사건(Taewongun's missionary contact trial case),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t),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패러독스(paradox)